

## Historical Study of Korean Architecture (1)

by Bong Jin Kang

---

Throughout all the long history of mankind there have been three essential elements he has tried to satisfy. These are the necessities of life, they are clothes, food and shelter.

As mankind has developed his knowledge, he has made a constant effort to improve his standard of living as to the three necessities of life. Also and may be as a result of this, war and struggle have been a part of mankind's history. With war comes destruction, and this meant that the shelters which were built with great effort were many times destroyed. As peace returned, the building and other equipment destroyed in the war was rebuilt.

A very strong point in the history of building is then this cycle of destruction and construction which has been repeated countless times since the beginning of time.

Shelter, one of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life means buildings. In the early history shelters were used primarily for protection. Protection from the natural elements and protection from the enemy. There is also proof that these shelters were designed for the human's own safety.

In the primitive age, the first types of shelters or buildings were the private house. There are known for their use of natural materials and geographic setting. They were placed in caves, in trees or on the sea. They always tried to take advantage of natural protection. Proportional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much progress was made by ancient man in his development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legend, Korean architecture originated from the period of the legendary foun-

der and first king of Korea Tankwun, 4,300 years ago. At that time, Tankwun descended from the mountain Taibaek and became king of Korea. After setting up the capital at the mountain Kwuel, he built a palace, this was the first Korean architecture. But according to the documentary records, it originated from the period of the Sam Han (Three Han) states in the south of ancient Korea and Naklang in ancient north Korea.

The Sam Han states were very primitive, and the development of architecture was very slow. However in the Naklang states for a period of about 400 years, they progressed very rapidly when compared to the states of the south Sam Han. The Naklang state was the principal Chinese colony in ancient Korea and was located near what is now Pyongyang and known in Chinese as Lo-lang. This early period is most influenced by Chinese culture and the native Korean characteristics come at a later date.

The pure Korean architecture origins come from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Sam-Kwuk). An early Korean state Sinla, one of the Three Kingdoms, ruled the southern half of Korea for nearly 1,000 years from 57 B.C. Now the site of this old Kingdom with various historical ruins scattered throughout the ancient area constitutes a complete center of tourist attraction. Especially Kyongju, the capital city of the Sinla is famous for its structural beauty.

Many of the famous buildings and cultural artifact have been destroyed. War and foreign occupation of Korea have left Korea with very few examples of her rich cultural heritage.

# 한국건축의 사적고찰(1)

강 봉 진

## 1. 서 론

무릇 인류가 태고시절부터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문제는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이 세 가지 요소를 인류생존의 삼대요소라고 부른다.

인지가 점점 진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욕구해결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더 좁 나은 생활에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류는 남보다 더 머리를 써야 하며 더 활동을 해야 했고 타인과 타부족 더 나아가서는 타민족과의 경쟁이나 전쟁을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쟁이나 전쟁에서 패한 자는 망했으며 승리한 자는 흥해서 패한 자는 승리한 자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케 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자의 제공자로 전락되어 승리자가 하라는 데로 지배를 받았으며 이 결과 승리자는 최대한의 영화와 욕구를 충족시켜 왔음은 인류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또 이 경쟁이나 전쟁의 승리자는 부족이나 민족을 지배통치하고 일정한 한계의 영토를 보유하게 되어 국가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국가 대 국가의 투쟁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는 인류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건축물이 병화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리고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다시 오면 파괴된 건축물을 다시 복구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를 파괴의 역사라고도 한다.

파괴는 즉 건설의 전제요 건설은 또 어느 시기에 가면 다시 파괴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데 인류의 진보 발전이 있었던 것이다.

고로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 발달의 정도를 측정하려면 그 나라의 건축물을 봐서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생존의 삼대요소의 하나인 주(住)는 즉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주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용기로서 의적을 방지하고 풍우설상(風雨雪霜)과 같은 자연 현상의 위협에서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며 맹수(猛獸)나 곤충(昆蟲) 등의 침입을 막기위하여 지구상에 구축하는 건축물 인 것이다.

여기에 있어 주라는 개념은 협의적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택은 물론이요 궁전, 사찰, 교회, 사원 등과 같은 인류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축물 더 나아가서는 사후의 영원한 안락처인 분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전지 시대의 인류 최초의 건축물은 두말할 것 없이 주택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주택은 최초에는 자연의 지리를 이용하여 건축한 동굴주택(洞窟住宅), 수상주택(樹上住宅), 호상주택(湖上住宅) 등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석기시대(石器時代)를 지나 금속기시대(金屬器時代)로 접어 들면서 인류는 급속도로 문명이 발달하여 건축물도 이에 따라 발전하였던 것이다.

한국건축의 연원은 건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4,300여년 전에 단군이 한발산(太白山, 白頭山)에 강림(降臨)하여 조선국왕이 되고 후에 황해 구월산에 도읍을 옮겨 궁전을 건축했다고 하며 농사를 지어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는 법과 삼을 심어 질삼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때 이미 우리 민족은 동굴 생활과 피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 생활에서 탈피(脫皮)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건축이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은 삼한시대(마한, 진한, 변한)와 낙랑시대 부터이다.

삼한시대의 건축은 우리 민족의 원시적인 생활시대 이므로 보잘 것 없는 것이었으나 낙랑시대는 소위 낙랑문화를 이루어 400 여년간 번창했었고 건축도 삼한 보다는 훨씬 발달했었다.

그러나 이 낙랑문화는 중국의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4군현을 설치하고 소위 군현정치(郡縣政治)를

했던 시대의 문화이므로 중국 민족의 문화 예술이었으며 고유한 우리 민족문화의 색채는 없었다.

우리 고유의 건축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포함)의 삼국시대 부터이었다.

신라가 통일한 후부터는 우리 건축문화는 급속도로 비약 발전하였다.

고려시대는 중세기의 안정된 사회를 이루었으며 목조건축에 있어 우리나라의 고유한 양식을 확립하였다.

이조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시대 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 발달의 원동력이었던 불교 대신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영향으로 유교를 숭상 하게 되어 건축물도 신라 고려의 불교건축 대신 문묘, 서원, 객사 등 유교적인 건축이 많이 건설되었다.

이상 논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예술은 낙랑시대 부터 중국 대륙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건축이나 공예 등 예술적인 면에서는 중국 것을 무조건 그대로 모방하지는 않고 우리 민족 고유의 양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즉 삼국시대의 고구려 고분이나 신라, 백제의 석조물 또 통일신라의 석굴암이나 금속공예품 등과 고려시대의 목조건물이나 도자기 등에서 우리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중국과는 다른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화적 유산들이 빈번히 외적의 침범에 의하여 약탈, 파괴, 손실되고 또 장구한 세월에 못이겨 풍마우세로 자연도피되기도 하여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 2. 한국건축의 건축상 위치

한국건축은 동양건축의 3계통 즉 지나계(지나, 한국, 일본, 유구, 안남), 인도계(인도, Siam, Tava), 회교계(토이기, 아라비아, 북아메리카, 스페인, 페루샤)의 3대 계통 중 지나계 건축의 1에 속한다.

지나계 건축은 중국민족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발달하여 동으로 한국건축에 영향을 주고 한국은 한국 고유의 것에 지나의 영향을 가미하여 발달하였으며 이것을 다시 일본에 전해주었고 남으로는 안남과 유구에 까지 영향을 미치었다.

그러므로 한국건축은 계통상 지나계 건축계통에 속한다고 하나 지나건축과 전연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에는 물론 지나건축 그대로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한국 고유한 양식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것은 지리적 조건과 민족적 풍속 습관이 지나와는

다르기 때문이었다.

## 3. 한국 건축의 시대 구분

한국 건축의 발달 과정을 건축양식적으로 구분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건축이 상고시대 부터 어떠한 양식이나 구조가 체계적으로 시대에 따라 토막 토막 구분되어 발달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계속적이고 유동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서서히 변화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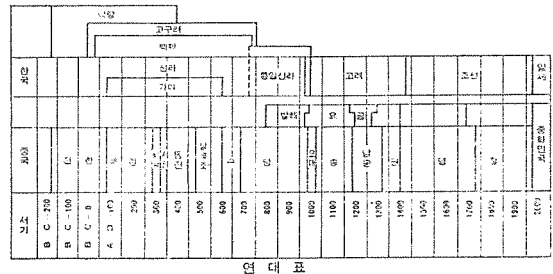
그러므로 편의상 한국건축의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왕조의 연대순으로 구분하여 고찰코자 한다.

상고시대	{	낙랑군.....B.C 108~A.D 313	}
		대방군.....후한말 ~A.D 313	
		삼한.....전한초~전한말	
삼국시대	{	고구려.....B.C 37~A.D 668	}
		백제.....B.C 18~A.D 663	
		가야.....후한초~A.D 562	
		신라.....B.C 57~A.D 653	
		{초기 (B.C57~A.D 499) 중기 (A.D500~A.D 646)	

신라통일시대 {통일신라...A.D 654~A.D 935 {말기 (A.D 645~A.D 928)

고려시대 {고려...A.D918 {초기 (A.D 918~A.D~1212)  
~A.D1392 {후기 (A.D 1214~A.D~1392)

이조시대 {조선...A.D 1393~A.D1910 {초기 (A.D 1393~A.D 1591)  
중기 (A.D 1592~A.D 1724)  
말기 (A.D 1725~A.D 1910)



낙랑과 대방의 건축은 상당히 발달하였으나 그것은 주로 지나에서 건너온 중국 민족의 문화 예술로서 한국 고유한 것은 아니었다.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은 우리 민족 국가이었지만 건축은 원시적인 움집이나 귀틀집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상고시대는 한국 고유의 건축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의 삼국시대는 한국 건축의 발생시대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에 지나의 한위 육

조시대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다.

신라 통일 시대는 한국 건축의 전성시대로서 지나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룬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한국의 고금을 통하여 비견할바 없는 예술 문물의 전반에 걸쳐 비약 발전하였던 시대이다.

고려시대에는 한국 건축의 여성시대로서 신라의 예술미를 계승 연장하고 지나의 송과 원의 영향을 받아 전대에 비하여 섬교하고 우아한 예술이었다.

이조시대에는 한국 건축의 쇠퇴시대로서 초기에는 상당히 우수하였으나 중기 이후 국가 기운이 떨어짐에 따라 점점 쇠퇴하였으며 다만 지나의 영향은 그리 받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한국 고유한 특질을 발휘할 수는 있었다.

#### 4. 한국 건축의 성격

한국 건축은 지나 건축과 일본 건축의 중간적 성격을 가졌다.

일례를 들면 지붕의 양쪽에 있어 중국 건축은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세력적인 곡선으로 되어 있고 일본 건축은 그네들의 성벽적인 직선으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한국 건축은 중간이 직선으로 되고 양단만이 곡선인데 이 곡선은 있는 듯 없는 듯한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 겸손하고 참을성 있는 한국 민족의 성격과도 같은 고유한 곡선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나라 마다 천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면한 반도국으로서 북쪽으로는 중국에 접하고 일본과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다.

고로 옛날부터 중국의 문화는 섬나라인 일본보다 한국으로 먼저 수입되어 한국 문화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고 한국은 한국 고유의 색채에 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가미하여 독자적인 발달을 이룬 후에는 한국의 문화를 다시 일본에 전해 주었던 것이다.

또 한국 민족은 지나 민족과는 다른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풍속 습관이나 취미 기호까지도 지나와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독자적인 성질의 건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세장하고 산악이 국토의 대부분이며 대륙성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서가 공히 심하여 한기에 대비하기 위한 온돌이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산악이 대부분이나 곧으며 좋은 목재를 얻기 어려워 목조건축보다 석조나 전조건축이 많이 발달하였다.

특히 석재는 대단히 풍부하여 화강석, 편마암, 사암,

안산암 등의 좋은 석재를 산출한 결과 석탑, 석비 등이 많이 축조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한국 건축은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고유한 성질을 가미하여 한국 고유한 건축으로 발달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건축은 고대로 대도시나 도읍이 모두가 천연의 경승지를 복택하여 경영되었다.

예를 들면 서울은 북한산을 등지고 한강을 앞에 둔 중간 분지에 건설하였고 개성은 송악산을 등지고 운계천을 중심으로 건설하였다.

평양, 부여, 경주가 모두 이러한 환경을 택하였다. 이것은 소위 산하급대 사신상응지지의 풍수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 성곽의 특징은 이러한 도성에 산성이란 것이 붙어 있는 점이다.

즉 도성의 배후에 산봉우리를 따라 봉에서 봉으로 석성을 쌓아둘렀다.

예를 들면 국내성에 대한 국내 산성, 서울성곽에 대한 북한산성, 남한산성 등으로서 이런 것은 한국 고유의 독특한 법식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 아래 건설된 한국 건축은 처음에는 대부분이 궁전건축 본위로 건설되었다.

평면은 지나 건축의 영향을 받아 좌우균제(Symmetry)를 취하고 평면 단위를 간으로 계산하여 장방형의 본전을 중심으로 하여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무욕이 좌우에 배열하고 그것을 익랑으로 연결하는 개방식, 중정식 평면을 이룬 것이 한국 건축의 특색이다.

이러한 평면 형태는 궁전이나 불사가람 또는 서민의 주택에 이르기 까지 그러하였다.

지붕은 맛배지붕, 우진각지붕, 팔각지붕, 다각지붕의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맛배지붕은 양쪽 끝이 수직으로 된 것으로서 박공지붕이라고도 하며 가장 오래 되고 보편적인 지붕형태이다.

우진각지붕은 세마루집에서 종도리를 맛배집보다 짧게 하고 단절되는 양쪽 면을 지붕으로 막는 형식으로서 일명 우산각지붕이라고도 하며 맛배집 보다 한층 진보된 형식으로서 문루나 주택 등에 많이 사용하는 지붕 형식이다.

팔각지붕은 맛배집과 우진각지붕을 합한 형식의 지붕으로서 일명 팔각지붕이라고도 하며 5량집이나 궁전 사찰 등과 같은 규모가 큰 집에 사용하는 지붕형식이다.

다각지붕은 6각, 8각, 또는 원형지붕 등으로서 일명 보형지붕이라고도 하며 정자 등에 많이 사용하는 지붕

형식이다.

이러한 지붕들은 맞배지붕을 제외하고는 처마 끝이 한국 고유의 우아한 곡선을 이루는데 이러한 곡선은 한국의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의복, 가구, 공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한 완만한 곡선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지붕의 곡선미에 덧붙여 지붕 위의 장식도 한층 미를 돋군다.

즉 용마루의 양쪽 끝에는 취두나 지미를 얹히고 내림마루에는 용두를, 귀마루에는 손오공이나 무인상 또는 괴수 등의 잡상을 배열하고 또 처마 끝에는 여러가지 무늬를 조각한 여막새, 부막새로 장식하며 사레 끝에는 토수를 끼우는 등 실로 황홀한 미를 느끼게 한다.

구조에 있어서도 처마를 떠어 받는 공포의 포작수법은 중국이나 일본 것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한국건축의 특징의 또 하나는 출입문의 위치인바 출입문은 맞배쪽에 있지 않고 반드시 처마쪽으로 내는 법이다.

궁전이나 사찰이나 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하다.

반자는 대규모의 건축물은 우물바자로 하고 규모가 작은 건축물은 연등반자로 하며 민가는 종이반자로 하였다.

### 5. 삼한의 건축

이 시대에 속하는 건축의 유물을 우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다만 석기 시대의 일반적인 유물인 고인돌(支石 Dolmen)이나 패총(貝塚) 같은 것은 함경북도 옹기지방,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기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에 산재하고 평양, 경주 부근에서는 금속문화 시대의 유물인 동족(銅簇), 동모(銅鉞), 동검(銅劍) 등이 발굴된바 있을 뿐이다.

이 시대의 건축의 일모(一貌)를 규찰(窺察)할 수 있는 문헌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마한(임나=가야의 전신)의 주택은 초옥의 토실로서 형태는 무덤과 같고 그 위에 문이 있었다. 즉 입혈석거실(豎穴式居實) 다시 말하자면 토막(土幕) 집으로서 일종의 움집이었다.

(馬韓其俗 居處作草屋 土室 形如塚 其戶在上 學家 其在中 云云) 진한, 변한의 건축은 목재를 횡루(橫累)하여 루옥(牢獄)과 같은 주택이었다고 한다. 즉 일종의 귀틀 집이었다.

(辰韓 其國 作屋 橫累木 爲之 有似牢獄也 云云 魏志 卷三十, 辰韓條)

또 온돌은 이미 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다.

즉 삼국지에 변한과 진한에는 집집마다 아궁이가 있었다고 하였으니 아궁이에 불을 때워 밥도 해먹도 난방도 겸했던 것이다.

(辯韓與辰韓…施竈皆在戶面 云云…三國志)

이상 문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북방을 점령했던 낙랑 대방은 한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건축도 상당히 발달하였지만 남부의 삼한은 문물이 발달되지 않아서 건축도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 6. 낙랑(樂浪), 대방(帶方)의 건축

평안남도 대동강 연안의 오야리(梧野里), 토성리(土城里)에는 지금도 소위 낙랑고분군(樂浪古墳群)이 1300여기(基)가 산재하고 있다.

B.C 108년에 한(漢)의 무제(武帝)가 고조선 위만(衛滿)을 멸망시키고 조선에 사군현(四郡縣)을 설치하여 소위 군현정치(郡縣政治)를 시행하였다.

즉 조선본토(대동강부근, 경기황해)에 낙랑군, 옥저방면(沃沮方面=백두산 남방)에 현토군(玄菟郡), 예, 맥방면(濊, 貊方面=강원, 함남 1부)에 임둔군(臨屯郡), 한방면(韓方面=한강유역)에 진번군(眞番郡)의 사군(四郡)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그러나 낙랑군을 제외하고는 조선 민족의 세력이 강한 다른 삼군(三郡)은 불과 30여년만에 한(漢)의 통치를 벗어났고 또 낙랑군도 후한말(後漢末)에 그 남부(西部)를 쪼개어서 대방군(帶方郡=경기, 황해)으로 하였다.

삼군(三郡) 철폐 후 낙랑은 계속 발전하여 25현(縣)에 인구 40만을 포용하고 한(漢)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아 한민족(漢民族)의 문화가 수입되어 찬란한 낙랑문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후 후한(後漢)이 망하고 삼국시대가 되어 낙랑, 대방의 2군(郡) 공희 위(魏)에 속했다가 나중에는 진(晉)의 건흥원년(建興之年=서기 131)에 드디어 북방에서 일어난 고구려에 멸망되었다.

낙랑 대방의 건축물로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으나 다만 군현치저(郡縣治址), 분묘(墳墓), 장식문양(裝飾文樣) 등에 의하여 찬란하였던 당시의 문화의 일편을 엿볼수 밖에 없다.

#### (1) 낙랑군치저(樂浪郡治址)

대동강 남안 토성리에 동서로 약 700m, 남북으로 약 600m를 토축(土築)의 성벽으로 두르고 있다.

여기서 낙랑예관(樂浪禮官), 대진원강(大晉元康)이라고 양각(陽刻)한 와당편(瓦當片)과 낙랑 태수장(樂浪太守章)이라고 쓴 봉이(封泥)가 발굴되어 낙랑군치저임이 확인되었다.

(2) 점선현치지(粘蹕縣治址)

평남 용강(龍岡)의 을동(乙洞)에 고성(古城)이 있다. 점선현은 낙랑군 치하의 일현(一縣)으로서 이 근처에 고비(古碑)가 서 있다.

(3) 대방군치지(帶方郡治址)

황해도 사리원(沙面院) 당토성(唐土城) 일대로서 이 근처에 있는 고본에서 사군 대방 태수 장무이 전(使君帶方太守 張撫夷 塹)이라고 쓴 전돌(塹石=日乾벽돌)이 나왔고 당토성에서도 여러가지 유물이 발굴되었다.

(4) 낙랑대방현치지(樂浪帶方縣 治址)

평양부근, 순천(順川), 평강(平康) 안주(安州) 강동(江東)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5) 현토군유적(玄菟郡遺蹟)

함경남도 영흥(永興)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6) 낙랑분묘(樂浪墳墓)의 외형

분묘는 성토봉분(盛土封墳)으로서 석재로 주위를 쌓거나 탑비(塔碑)를 세운 일은 없었다.

형태는 방대형(方臺形)으로서 사각평면 기단의 사방에서 경사를 주어 돌아 올라가고 상부도 평탄하게 깎은 사각평면이다.

중국의 주(周), 한(漢)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사리원의 대방태수 장무이묘(帶方太守 張撫夷墓)는 좋은 예(例)이다.

크기는 대소 작색이나 큰 것은 정부(頂部)가 방(方) 10m, 기저(基底)가 36m나 된 것도 있다.

(7) 낙랑분묘의 구조

성토 분묘의 내부의 실(室)을 팍(槨)이라 한다.

팍내(槨內)의 관(棺)을 장치(藏置)한 실을 현실(玄室), 그 전면의 제사 지내는 실을 전실(前室), 그 옆 실을 측실(側室)이라 하고 외부로부터 실까지 오는 길을 선도(羨道)라고 한다.

팍(槨)은 목팍(木槨)과 전팍(塹槨)의 두 가지가 있다.

목팍(木槨)은 또 팍의부를 흙이나 점토로 싼것과 팍의 저부(底部) 및 네둘레에 둥근돌을 채우고 그 사이에 목탄(木炭)을 채운 것, 팍의 외부를 전(塹)으로 싼 것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전팍은 천장을 목재로 한 것과 궁륭천정(穹窿天井= Vault)으로 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목팍의 구조는 천장, 바닥 및 사벽(四壁)을 후판(厚板)으로 만든 것과 각재(角材)를 가로 걸쳐 천장이나 바닥을 만든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전팍의 구조는 1.10×0.50×0.20(척) 가량의 전돌로서 팍을 축조하고 벽에서 궁륭(穹窿) 천장을 내쌓기식으로 축조하였다.

전돌은 다른 전돌과 물리기 위하여 한쪽 끝에 장부가 만들어졌고 다른 쪽 끝에는 장부홈이 만들어졌다.

이 전돌을 길이와 마구리를 종횡(縱橫)으로 사용하여 팍을 축조하였다.

전팍의 바닥은 전돌 장점침으로 일자갈기(一字) 또는 갈대방석갈기 등으로 깔았다.

벽은 1장쌓기로서 헛쌓기가 보통이나 장무이묘(張撫夷墓)에는 석회물탈을 사용하여 쌓았다.

전팍의 입구상부는 반드시 반원형 홍예(半圓形虹蜺=Arch)로 되어 있다.

이상 보는바와 같이 낙랑시대에 이미 구조물에 Arch를 사용하였고 석회 물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낙랑의 장식문양(裝飾文樣)

발굴된 전돌이나 와당(瓦當)에는 여러가지의 장식적 문양이 조각되어 있으나 이것은 모두 한(漢)이나 서진(西晉)의 것과 동일한 문양으로서 한국 고유의 것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전돌에 새겨진 장식문양은 대별하여 문양(文樣)과 문자명(文字銘)의 두 가지로 나눈다.

문양은 직선문, 곡선문, 구슬문(珠文), 어문(魚文), 전문(錢文)의 5가지가 있고 직선문에는 능문(菱文), 물결문(波文), 솜문(打綿文), 빗살문(斜格文), 정살문(方格文), 거북문(龜甲文)등 여러가지가 있다.

곡선문은 뱀문(蛇文), S형문(S形文), 반원문(半圓文), 사반원문(四半圓文), 고사리문(蕨文) 등이 있다.

문자명은 연호(年號)나 간지(干支) 또는 묘주명(墓主名), 영묘자명(營墓者名), 사자에도문자(死者哀悼文字), 길상어(吉祥語)문자 등이 있다.

와당(瓦當) 문양도 문양과 문자명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문양은 원(圓)을 4등분하고 각 구내에 고사리문(蕨文)을 넣었고 문자명에는 낙랑예관(樂浪禮官), 대진원강(大晉元康), 천추만세(千秋萬歲)등을 전서(篆書)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낙랑 대방의 건축은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분묘 뿐이지만 이 분묘의 구조, 재료, 시공법 등에서 또 발굴물의 장식문양 등에서 우리는 2,000여 년 전 우리 땅에 비록 의국문화라 할지라도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문화가 후일에 우리 민족 고유의 건축 발전에 영향을 주었음을 생각할 때 이 낙랑시대 문화를 도리켜 보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계속)